

이집트,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

2003년 1월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

이집트 파운드는 2003년 1월 29일자로 외환시장에서 가격 변동 폭에 대한 규제 없이 자유로이 거래되게 되었는데, 시장 거래의 가중평균이 공식 환율이 된다. 제도 변경 직전의 공식환율은 달러 당 4.65 수준이었지만 제도 변경후인 1월 30일자 달러 매입 공식환율은 5.378 파운드로서 암시장 환율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집트 중앙은행은 파운드의 지나친 변동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으로 변동 폭을 조절할 예정이지만, 이번의 환율 현실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이후의 경상수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차이를 10% 이상의 수수료로 보전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집트의 외환보유액이 140억 달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것에 비추어 수입자들의 외환 확보도 상대적으로 크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변동환율 관리 경험

이집트는 달러 당 3.40 파운드에 페그 시스템(고정환율제)을 9년간 유지하였으나 이 달러 페그 시스템이 고평가와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외환유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5월에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전 주의 거래치 가중평균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된 중심환율은 2001년 1월 말 달러 당 3.85로 정해졌고 변동범위는 중심환율에서 상하 각각 1 퍼센트 이내였다. 중심환율은 5월말에는 3.86으로, 7월 초에는 3.90으로 상승하는 등 파운드의 전망이 악화되자 중심환율은 다시 8월에 4.15로 급등하였고 환율 변동범위는 중심환율 상하 각 3% 범위 내로 확대되었다.

공식환율이 2001년 11월에 4.27 파운드에 이르자 중앙은행은 수입은 반드시 신용장 거래로 하도록 하고 해외송금을 3개월 금지하며 정부의 수입도 줄이

는 등의 외환 방어 조치를 동시에 취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국제수지 악화 지속으로 단계적인 환율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면서 암시장 환율이 계속 치솟자 2002년 1월 중심환율은 달러 당 4.51 파운드에 올랐는데 그 시점에서 암시장 환율은 5.38까지 솟았다.

앞으로의 환율 전망

이집트는 2000년이래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용하면서 환율의 상승 폭을 억제해왔으나 중동 정세의 불안, 특히 미국의 이라크 공격 전망이 이라크의 주 수입원인 관광에 침체를 가져와 경제가 침체를 계속함으로써 환율도 상승을 지속하여왔다. 파운드가 완전자유변동환율제에 의해 시장가격을 반영함으로써 고평가된 파운드에 의한 수입 촉진, 수출 억제라는 무역 왜곡 효과는 일단 해소되었다. 그러나 중동 정세의 안정과 이집트 경제의 구조조정 완결 등이 따라야 파운드도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파운드 환율은 달러에 대해 2003년 말이면 5.5~5.8 파운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선임연구원 강준수
jkang@koreaexim.go.kr